원로와의 대담

국민건강 전도사
洪 文 和 박사

"국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투자 적어도 스포츠계나 예술계 정도는 돼야죠"

대담 / 朴 澤 奎
〈건국대 교수/본지 편집위원장〉

약사 및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서울대 약대학장, 생약연구소 교수로 활약하면서 천연 전승약물연구로 큰 업적을 남긴 홍문화박사는 국민건강과 과학대중화를 위한 강연으로 폭염도 잊은채 열정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4천여회의 주례도 맡았다는 홍박사는 소문난 효자집안으로 5남매의 자녀가 의사 · 약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며칠전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과학저술인협회 가족들과 함께 산업시찰을 다녀오면서 선생님 건강론을 곁들인 인생론 특강을 듣고 새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선생님 가정이야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친께서는 30년 전에 이미 작고하셨고 모친께서는 10년 전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오늘날까지 1942년에 결혼한 아내(朴文姬여사 · 77)와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복중의 하나라는 자식 복도 비교적 있는 편으로 5남매가 모두 전문직업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장녀 덕혜(在美의사, 남편도 의사), 장남 주안(미국 UC, Irvine 생화학교수, 아내는 약사), 차녀 소란(在美의사, 남편 신영섭 · 미국 ABS연구원), 차남 현웅(KAL 국제부장, 아내는 약사), 3녀 을미(미술전공, 남편 박표원, 삼성의료원 의사), 사위 며느리까지 합하면 의사 4명, 약사 2명이지요.

1916년에 평안남도 평양시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경성약학전문학교에 입학했어요. 내가 장남이어서 부모님을 모셨고 지금 흑석동 집에서 차남(현웅씨)과 손자, 손녀 등 6명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국민학교 4년생인 손자와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조부모의 무릎위에 앉아서 받는 교육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무릎위 가정교육 가장 중요

아놀드 토인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3대가 함께 살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위에 손자, 손녀가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가족은 동물가족이라고 했어요.

동물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벌이 꿀을 만들거나 개미가 집을 짓는 것이 교육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혜가 전달되는 것일까,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유전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어요. 체내유전(Endosomatic)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즉,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본능으로 들어 있지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본능이라는게 식욕, 성욕 등 몇가지밖에 없고 사는 지혜로는 하나도 전달된게 없어요. 사람을 그냥 야생으로 기르면 동물보다 못하고 생활의 지혜가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지요. 인류가 만물의 영장인 것은 체외유전(Exosomatic)이 있기 때문이예요. 이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문자가 생긴 이후 대부분 교육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데 바로 교육을 통해서 진보가 계속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애들을 본성대로 놓아두는 느낌이 들어요. 학교시절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조부모의 무릎위에 앉아서 받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식, 손자들 사이의 단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문화박사(左)가 건강의 비결이 편안한 마음에 있고,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에 있다고 박택규 본지편집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약사 및 의사자격을 취득하셨고 서울대 약대교수, 약대학장, 생약연구소 교수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천연물중 전승약물연구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의 과학화 위한 활동

1937년에 서울약전을 졸업한후 모교에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41년에 조선의사시험에 합격했고 42년 4월에 경성제국대학병원(서울대병원) 암정(岩井) 내과의 연수생이 되어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1981년 서울대에서 정년퇴직하였는데 도중에 국립보건연구원장도 지냈지요.

60년대 초 문교부 기술교육국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서울대 생약연구소(현 천연물화학연구소)에서 10년간 있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민간약인 천연물 전승약물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방의약에 이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젊은 교수들에게 연구의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보낸 10년간이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세번의 중요한 계기를 든다면 첫째로 일제때 의사자격을 얻어 의약 겸직으로 생명을 보는 안목을 지닐 수 있었다는 점, 둘째로 61년에 문교부 기술교육국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연구기관 통합, 과학기술처 설립 필요성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점입니다. 이때 주무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시야를 넓힐 수 있었지요. 최기철교수, 권영대교수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에 참여했고 뒤에는 회장도 지냈어요. 과학기술문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저변확대에 기여했지요.

셋째로, 과총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일원으로 보건분야를 맡아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몽강연을 했지요. 76년

부터 전국민과학화운동에 앞장서 전국 순회강연도 했어요. 아마 박교수와도 몇군데 함께 다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함께 갔던 원주강연도 퍽 인상깊게 남아있어요. 그후 이장규박사 등 여러분과 협력하여 한국과학저술인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고 요새는 고문직을 맡고 있어요. 최근에도 하루 두번 정도의 강연을 하며 1년에 3, 4회 정도 일본에 가서 강연을 하지요. 아마 작년도의 강연횟수가 어림잡아 5백회를 상회할 것입니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선생님의 업적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조가 있으시다면…

과학대중화 강연 전국순회

프랑스 화가 고갱은 "예술을 위한 예술, 생활을 위한 예술, 즐거움을 위한 예술" 이 세가지 중 어느것 하나라도 하면 보람있는 일을 하는 예술가라고 갈파했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예술가만이 진짜 예술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학문을 위한 과학, 기술을 위한 과학, 호기심과 즐거움을 북돋아주는 과학, 이 세가지 부류의 과학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위한 과학, 생활을 위한 실용주의적 과학, 호기심을 갖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과학이 조화있게 발전하면 과학에 관심을 갖는 저변확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생활을 위한 과학, 과학을 세상에 알리는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도 크게 발전하였어요. 대규모 연구단지, 대학, 과학행정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동안 씨를 뿌려 과도기 건설에 진력한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과학정신이 생활화 안되어 있어요. 과학정신이란 합리적인 사고를 뜻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전체 국민의 의식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요. 교량붕괴, 대형건물 붕괴사고 등이 바로 과학의 이치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엄청난 재앙이지요. 생활의 과학화는 바로 우리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건전한 생활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례도 많이 하셨고 특히 대중강연중에서 건강관련 강연은 명강연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주례는 4천여회 맡았던 것 같아요. 직접강연, 전파시스템을 통한 강연, 원고집필, 저서출간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민보건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스스로 건강의 전도사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 올바른 건강관을 확립하는데 각자의 생활태도가 중요하지요.

의사를 ① 上醫治未病(아직도 생기지 않는 병을 고치는 의사) ② 中醫治欲病(바야흐로 생기려는 병을 고치는 의사) ③ 下醫治已病(이미 생긴 병을 고치는 의사)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치료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평균수명은 일본이 80세, 한국이 71세인데 일본은 요새 치매증 환자가 1백만이나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산다는 지표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지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생활전반 계몽, 공감대 확산이 긴요하다고 믿어요. 건강의 비결은 편안한 마음에 있고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에 있으며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믿어요.

■선생님 학위논문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전공 이외 최근에 많이 읽히는 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著書「신동의보감」등 人氣

미국 퍼듀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62년 서울대에서 「분말성(粉末性)약품의 입자도(粒子度) 측정에 관한 연구」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신동의보감」「신역동의보감」「약이냐 독이냐」「한국의 생약」「약과 건강」「건강하게 사는 지혜」「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홍문화박사의 건강교실」 등 다수가 있어요.

■선생님,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학인구의 저변확대,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운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고 합리성,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적어도 스포츠나 예술계 정도로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능한 소장 학자들이 행정직을 맡으면 연구가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행정을 맡기지 말고 과학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겠습니다.

끝으로 공자가 제자에게 자신을 평한 다섯가지 중에서 두가지를 인용해 보면 學不厭(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고) 敎不倦(터득한 것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고)…

■선생님 장시간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T